

美텍사스 폭우 사망자 어린이 14명 포함 32명으로 증가

전날 24명서 늘어...실종 어린이 20여명
트럼프 “연방 정부, 주·지역 당국과 협력”

미국 텍사스 내륙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다.
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커카운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전날 급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24명에서 8명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 가운데 성인은 18명으로, 어린이도 14명으로 늘어났다. 당국은 전날 한 기독교단체가 개최한 여름 캠프 ‘캠프 미스틱’에 참가한 여자 어린이 중 20여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종된 어린이만 여전히 20여명에 달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헬리콥터, 보트, 드론 등을 동원한 실종자 수

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국은 향후 며칠간 추가 폭우와 급류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폭우는 여전히 샌안토니오 외곽 지역을 강타하고 있으며, 홍수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국립기상청(NWS)은 이 지역에 추가 폭우와 급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날까지 일부 지역에 30cm 이상의 폭우가 내렸고, 앞으로 시간당 15cm에 달하는 강우가 더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다.
넬슨 키드 텍사스 비상관리국 국장은 “모든 실종자가 발견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지역에 최소 25cm의 폭우가 내린 후 과달루페 강이 급격히 범람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또 AP 통신에 따르면 단기간 존재했던 열대성 폭풍 배리(Barry)의 영향으로 예보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다.
급류는 전날 이른 오전 단 45분 만에 약 8m가

상승하며 집과 차량을 쓸어갔다.
이 지역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캠핑을 즐기던 인파로 붐볐다.
특히, 수백명의 어린이들이 인근 여름 캠프 ‘캠프 미스틱’에 참가 중이어서 어린이들의 피해가 컸다. 한때 약 750명의 여자 어린이가 폭우에 갇히기도 했다.
이들이 머무르던 캠프장은 범람한 과달루페 강변에 있었다. 미스틱 캠프는 델라스, 휴스턴, 오스틴 등지의 아이들이 한달간 머무는 여름 캠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연방 당국이 주 및 지역 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용감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가족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길, 텍사스에도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썼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커 카운티에서 홍수로 과달루페 강이 범람하는 모습을 응급 구조대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中 토지시장 양극화...“전국 토지판매금 중 10대 도시 비중 53%”

30%대 유지하다 올해 급증

부동산 둔화기 대도시 쏠림 심화

올해 상반기 중국 지방정부 토지 판매금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대 도시에서 나오는 등 대도시와 지방 간 토지 시장 분화 현상이 심화했다고 경제매체 차이신이 6일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중국지수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중점 도시 30곳에선 건축 면적 총 21억㎡의 택지가 공급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됐고, 이 가운데 17억㎡가 거래(6.5% 감소)됐다.
하지만 300개 도시의 토지 판매금(出讓金·지방정부가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면서 받는 돈)은 8천600억위안(약 163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중국지수연구원은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거래 금액은 오른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토지 시장 분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베이징·상하이·광저우·항저우·청두·난징·시안·톈진·샤먼·우저우 등 상위 10

개 도시의 택지 판매금 비중은 53%에 달해, 2024년 말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20개 도시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중은 전국 판매금의 68%로 2024년 말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신은 “토지 시장 분화는 부동산 둔화기에 나타나는 큰 추세”라며 대도시 쏠림 현상이 트랜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지수연구원 통계를 보면 전국 택지 판매금에서 상위 10개 도시의 비중은 2020년 28%→2021년 32%→2022년 35%→2023년 37%→2024년 3

4%였다.
상위 20개 도시의 비중 역시 2020년 43%→2021년 49%→2022년 52%→2023년 53%→2024년 51%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황위 중국지수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소폭 하락했던 상위권 도시들의 토지 판매금 비중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1선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중국 최대 도시)와 2선 도시(인구 500만명 이상이거나 1선도시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진 대도시)의 역할이 컸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스위스 국경 도시 포랑트뤼시

프랑스인 수영장 출입금지...“물상식”

프랑스와 국경을 맞댄 스위스의 한 도시가 ‘물상식’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사실상 프랑스인들의 시립 수영장 이용을 금지했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프리지앵에 따르면 스위스 국경 도시인 포랑트뤼시는 이날부터 8월 말까지 스위스 국민과 거주 허가증 소지자, 유효한 스위스 근로 허가증 소지자에게만 시립 수영장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 조치가 “최근 며칠간 극심한 더위로 시설 이용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수영장 개장 이래 “부적절하고 물상식한 행동, 규정 위반을 한 20명 이상의 사람을 퇴장시키고 출입을 금지했다”며 이 조치는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수영장은 1천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곳에서 세금을 내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싶다”고 프랑스 3 지역 방송에 부연 설명했다.
포랑트뤼시는 수영장 이용 금지 대상을 폭집어 말하진 않았으나 이 제한 조치를 받는 98%는 사실상 프랑스인이다.
이에 소셜미디어(SNS)에선 스위스 도시가 이웃 프랑스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필리프 에거츠월러 포랑트뤼 시장은 프랑스 3 지역방송과 인터뷰에서 프랑스인을 겨냥한 ‘차별’이 아니라며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카라치서 주거용 다층 건물 붕괴...최소 16명 사망

파키스탄 남부 최대도시 카라치의 한 빈곤 지역에서 다층 주거용 건물이 무너지면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날 카라치 리아리 지구에서 주거용 건물이 붕괴했다.
붕괴를 목격한 한 주민은 AFP 통신에 붕괴 직전 급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으며 8명이 실종 상태다.
구조 당국은 밤새 잔해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 좁은 길가에 있어 충분한 중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카라치 지방 정부는 정확한 거주자 수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약 100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 건물이 위험해 2022년과 2023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물 주민인 이브라 카스켈리 씨는 AFP 통신에 퇴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무허가 건축과 부실 공사, 노후한 기반 시설, 안전 규정 미준수 등으로 건물 붕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라치에만 300개가 넘는 위험 주거 건물이 존재한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14세 소녀와 동거·출산...필리핀, 아동 성착취로 韓유튜버 체포

빈곤 아동 돕는다 홍보하며 후원받기도
필리핀 당국이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자신의 아이까지 낳게 한 한국인 유튜버를 체포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필리핀 GMA 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및 아동 성학대물 대응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지난달 카가얀 데 오로시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지난달 한국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이버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으며 이 계정이 체포된 한국인 A씨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A씨가 14세 소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 소녀가 최근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A씨인 것을 확인했다.
NCC-OSAEC-CSAEM은 “당국은 해당 플랫폼에서의 활동이 아동 온라인 성 착취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엄중히 추적·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한국 시청자를 상대로 후원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블 G-07 프리미엄

피닉스 K-07

피닉스 G-01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CMYK

+